



이제 마운드의 큰 형... “성적으로 말 하겠다”

KIA 투수 양현종

마운드의 ‘남버3’가 된 양현종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2019시즌’을 예고했다.

양현종은 자타가 공인하는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이다.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양현종은 이제 나이로도 팀에서 손에 꼽는 선수가 됐다.

1986년생인 윤석민이 올 시즌 KIA 마운드의 최고참이 됐고, 1987년생 김세현에 이어 양현종이 마운드의 큰 형이 됐다. “피동감이 되는 후배들이 들어왔다”며 웃은 양

윤석민·김세현 이어 최고참... 선배 역할 어깨 무거워
지난해 성적 아쉬움... 팀 내 디펜딩 챔피언 중압감 컸다
에이스 부담감 털고 6년 연속 두자리 승수에 도전할 것

현종은 “투수 중에서 위에 두 명밖에 없는데 최고참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선배로서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밝은 표정으로 덕아웃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양현종은 올 시즌에는 ‘근엄한 선배’로 중심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양현종은 “후배들에게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런 건 좋지만 이제는 중심을 잡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선배들도 안 계시니까 내가 모든 면에서 선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선배로서 내 모습이 안 좋게 비치면 그 여파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말수도 좀 줄이고, 묵묵하게 팀 중심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말수를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후배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는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양현종은 “내가 어렸을 적에는 나이 차이도 많고 선배들에게 말 걸기도 어려웠다. 요즘 세대에서 야구를 했으면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고 선배들 노하우도 빼냈을 것 같다(웃음)”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후배들에 맞춰서 이해하고 맞춰가겠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야구 노하우도 알려주고 싶다. 애들이 잘하면 우리 팀이 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나이에 맞는 역할을 예고한 양현종은 후배들에게도 ‘나이’를 강조했다. 양현종은 “나이에 맞게 행동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야구를 잘하든 못하든 나이에 맞게 선배 역할도 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반대로 야구를 잘한다고 해도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선배들을 존

중해야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며 “중고참 선수답게 삶은 소리도 하고 부족한 것도 진심으로 알려주겠다. 그게 내 나이에 맞는 역할이다”고 언급했다.

양현종에게는 에이스라는 목적인 역할도 있다. 지난 시즌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올 시즌을 준비하는 각오도 특별하다.

그는 “지난 시즌이 많이 아쉽다. 부상 선수도 나왔고 재작년에 워낙 좋은 성적을 내다보니까 선수들 기대가 컸다. 이겨도 뭔가 찝찝했고 지면 2패, 3패 하는 분위기였다. 선수들도 나도 그랬다. 기대 크니까 한 경기 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며 “개인적으로도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 2017시즌에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보완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스스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닝’에 대한 욕심도 여전히 있다. 에이스의 책임감으로 로테이션과 이닝을 채워가겠다는 각오다. 양현종은 “에이스의 부담감은 매 시즌, 매 경기 있는 것 같다. 내가 나가는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든

다”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느낀다. 에이스의 이름이 부담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로테이션 안 빠지는 게 목표다. 내 이닝하면 이닝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시즌은 길다. 내가 이닝을 많이 먹으면 1년 시즌을 하면서 내 앞뒤 선발들과 중간 선수들이 편하다”며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6년 연속 두 자리 승수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새해 시작은 우승 텃밭

25일부터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출전...우승 8회

타이거 우즈(미국)가 ‘텃밭’에서 2019년을 시작한다. 우즈는 오는 2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 올해 첫 출전이다.

우즈는 지난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5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1000위 밖이던 세계랭킹을 10위권으로 끌어 올렸다.

작년이 재기 ‘원년’이라면 올해는 부활의 완성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게 우즈의 야심이다.

우즈는 올해 세계랭킹 1위 탈환, 투어 최다승(82승) 기록 경신, 그리고 11년째 이어진 메이저 우승 갈증 해소이라는 과제에 도전장을 냈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은 이런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은 우즈가 새해 첫걸음을 내디디는 데 안성맞춤이다. 대회가 열리는 토리파인스 골프클럽은 우즈에게는 ‘약속의 땅’이다. 토리파인스 골프클럽에서 쓸어 담은 우승 트로피가 무려 8개다. 7개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따냈고 1개는 US오픈에서 거머쥐었다. 72홀 코스레코드(266타)와 남코스 18홀 최소타(62타) 기록 모두 우즈가 갖고 있다.

그러나 우즈가 상대할 선수들 면면이 만만치 않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이미 이번 시즌에 2승을 올려 ‘황금세대’의 간판으로 떠오른 켄디 쇼플리(미국), 세계랭킹 1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우즈와 우승을 다툰 것으로 보인다.

우즈는 쇼플리, 토니 피나우(미국)와 1, 2라운드를 치른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1박 2일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제이슨 데이(호주)는 2연패를 노린다. 데이는 매킬로이, 애덤 스콧(호주)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작년 마스터스 챔피언 패트릭 리드와 리키 파울러,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윤 람(스페인) 등도 우승 후보에서 빼놓을 수 없다.

소니오픈과 데저트 클래식 등 앞선 2차례 대회에서 아깝게 톱10 입상을 놓친 신인왕 후보 임성재(21)와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은 김시우(21)는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출사표를 냈다. 배상문, 강성훈, 김민휘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KBO 첫 여성단장 탄생

키움 구단, 임은주 전 K리그 안양 단장 영입

프로야구 출범 38년 만에 ‘우리 천장’을 깨고 첫 여성 단장이 탄생했다.

프로야구 키움 구단은 임은주(53·사진) 전 프로축구 FC 안양 단장을 새로운 단장 겸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와 국제심판 출신으로 유명한 임 단장은 그간 모기업 임원 또는 야구인 출신 단장이 대세를 이루던 프로야구에 첫 축구인 출신 단장이라는 또 다른 이정표도 세웠다.

임 단장은 은퇴 후 보폭을 넓혀 프로축구로 넓혀 2013~2015년 강원FC 대표이사, 2017~2018년 FC 안양 단장을 차례로 지냈다.

임 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해 FC 안양 단장에서 자진해 사퇴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임 단장이 구단을 강직하게 이끄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구단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로 판단해 영입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임은주 신임 단장은 구단을 통해 “개인적으로 준



키움 히어로즈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준상 사장은 야구단 마케팅에 집중하고, 임은주 사장 겸 단장은 야구단 운영 업무에 전념한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과 KBO 사무국의 모임인 실행위원회에도 임 단장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LPGA 개막전 우승 지은희, 세계 25위로 경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9시즌 개막전에서 정상에 오른 지은희(33)가 여자골프 세계랭킹 25위를 기록했다.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에서 끝난 LPGA 투어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지은희는 21일 자 세계랭킹에서 지난해 32위보다 7계단이나 오른 25위에 자리했다.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한 지은희는 이번 우승으로 LPGA 투어 한국 선수 최고령 우승 기록(32세 8개

월)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10년 당시 32세 7개월에 벨 마이크로 클래식을 제패한 박세리(42)였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킨 에리야 주타누간(태국)이 여전히 1위를 유지했고 박성현(26), 유소연(29), 박인비(31)가 2위부터 4위로 역시 순위 변화가 없었다.

10위 내에 또 다른 한국 선수로는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24)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